

베어벡호 '金빛 희망'

UAE와 평가전 2-0 완승...아시안게임 가능성 확인

1986년 서울아시안게임 이후 20년 만에 아시안게임 축구 우승을 꿈꾸는 베어벡호의 전망을 밝게 한 최종 모의고사였다.
 팀 베어벡 감독이 이끄는 아시안게임 축구 대표팀이 23일 밤(이하 한국시간) 아랍에미리트연합(UAE) 두바이에서 열린 UAE와 평가전에서 오장은(대구), 염기훈(전북)의 연속골로 2-0으로 승리했다.
 비록 승패에 큰 의미를 두기 어려울 만큼 여의치 않은 사정 속에서 치른 경기였지만 결과는 물론 내용면에서도 홈팀 UAE를 압도하며 소중한 승리를 거뒀다.
 축구대표팀은 이번 일정이 '약속의 땅' 카

타르 도하에 들어가기 앞서 마지막으로 가진 전력 점검의 기회였다.
 한동안 아시안게임 및 올림픽대표팀으로 나뉜 '이원 체제'로 어수선했고, 아시안게임 대표 20명이 온전히 모이지도 못한 채 훈련 시간마저 짧아 이번 UAE전은 중동의 기후와 잔디 적응을 위한 단순한 연습경기 이상의 의미를 찾기 어려운 처지였다.
 K-리그 챔피언 결정 2차전을 앞둔 김두현(성남), 백지훈, 조원희(이상 수원)를 비롯해 러시아에서 뛰고 있는 김동진과 이호(이상 제너트), J-리그 김진규(이와타) 등 여섯 명은 소속팀 일정을 소화한 뒤 대표팀에 합

류할 예정이라 팀 구성도 겨우 했다.
 무엇보다 베어벡 감독이 지휘봉을 잡고 여섯 경기 만에 승리의 기운을 느꼈다는 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한 판이었다.
 베어벡 감독은 지난 9월 대만전 8-0 대승 이후 성인대표팀, 올림픽팀을 번갈아 가며 다시 경기에서 3무2패에 그쳤다. 마지막 리허설에서 우승 가능성을 시험하며 자신감을 쟁긴 건 값진 수확이었다.
 UAE는 한국이 조별리그에서 맞붙는 상대 가운데 바레인전(12월5일 오전 1시15분)에 대비한 맞춤형 모의고사로도 의미가 있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설기현 연속골 도전

풀햄과 원정 경기 공격수 출전

설기현(레딩FC)에 대한 스티브 코펠 감독의 신뢰가 갈수록 두터워지고 있다.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에서 최근 최전방 공격수라는 새 임무를 충실히 수행해 내고 있는 설기현에 대한 애정을 코펠 감독은 감추지 않았다.
 코펠 감독은 "설기현은 잘 하고 있다. 득점력이나 볼 키핑 능력 모두 뛰어나다. 그는 뭔가 다른 플레이를 펼친다. 활동량이 많고, 페이스를 잘 유지한다"며 "만약 설기현이 최전방에서 지금과 같이 플레이

해준다면 그를 우선 기용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설기현은 코펠 감독의 무한 신뢰 속에 25일 자정 풀햄과 리그 14차전 원정경기에서 연속골에 도전한다.
 지난 19일 첼튼전에서 시즌 3호 골을 터트리며 프리미어리그 공식 홈페이지가 뽑은 '주간 베스트11'에 선정되기도 했던 설기현은 당분간 공격수로서 팀 승리를 이끌어야 하는 상황이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수원 차범근 감독 "역전 우승" 성남 김학범 감독 "역전 불허"

K-리그 챔피언 결정 2차전

25일 오후 2시 '빅버드' 수원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리는 프로축구 삼성 하우젠 K-리그 2006 챔피언 결정 2차전에서 올해 녹색 그라운드의 마지막 결전을 치르는 수원 차범근 감독과 성남 김학범 감독이 고심 끝에 엔트리(17명)를 제출했다.
 지난 19일 1차전에서 마지막 2분을 버티지 못하고 우승용의 헤딩 한 방에 패배를 곱씹은 수원은 '1차전 공격이 답답했다'는 지

적에 따라 전술적인 변형을 피할 것으로 보인다.
 수원은 용병 투톱 올리베라, 실바를 내세울 것으로 보인다. 둘 다 컨디션이 썩 좋은 편은 아니지만 그나마 창끝을 겨누기 위해선 둘에게 기대를 걸 수밖에 없다.
 대신 수원이 자랑하는 막강 허리 진용을 120% 활용하고 송종국에게 '특수임무'를 맡길 것으로 점쳐진다.
 중거리포를 장착한 백지훈은 5골, 이관우는 4도움으로 각각 팀내 부문 1위다. 전방에

세운 올리베라, 실바가 '고립'되지 않는다면 언제든지 이들에게 공격 포인트를 율릴 기회가 온다고 차 감독은 믿고 있다.
 김학범 감독은 조심스럽게 진용을 구축할 전망이다.
 우선 포백(4-back) 장학영, 김영철, 조병국, 박진섭은 시즌 초반부터 거의 불변의 조합이었다.
 유일한 변수는 부상으로 6주 진단을 받은 '식사마' 김상식이 선발로 나올 지 여부다. 1차전 1-0 승리를 등에 업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수비진을 지휘할 능력을 지닌 김상식을 수비형 미드필더로 배치하는 게 타당하다.
 성남은 김두현의 캐논샷, 우성용의 고공 헤딩포에 기대를 걸고 있다. 김두현은 중원을 조율하면서 팀이 나면 과감한 중거리포를 쏠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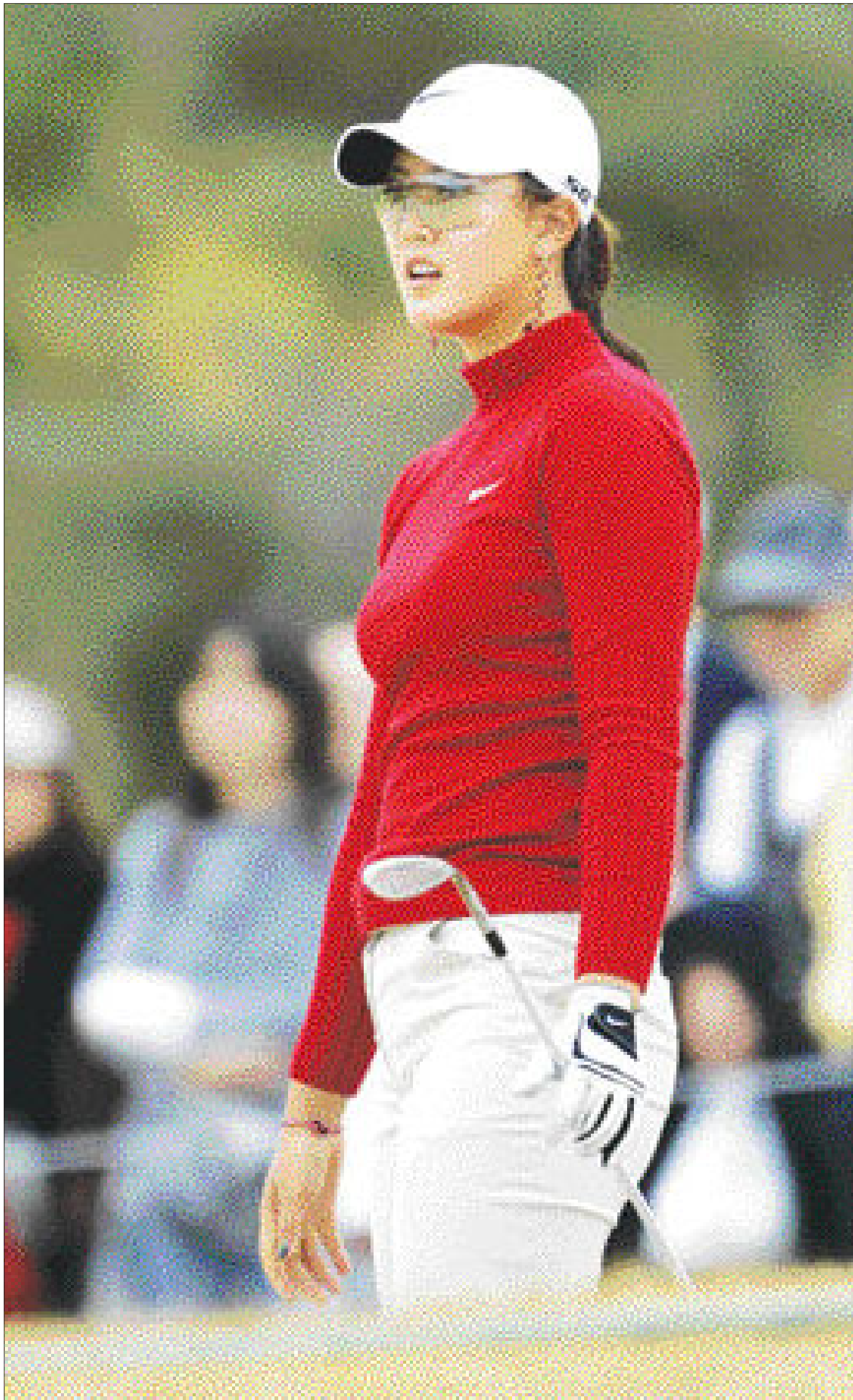


이승엽 '도쿄돔 MVP'

팬투표 1위...올 시즌 최고 활약 입증

이승엽(30·요미우리 자이언츠)이 홈구장인 일본 도쿄돔에서 올 해 최고의 활약을 펼친 선수로 인정받았다.
 요미우리 계열의 일본 스포츠 전문지 '스포츠히치'는 24일 이승엽이 지난 22일 까지 실시된 도쿄돔 MVP 팬 투표에서 1위를 차지해 상금으로 300만엔(한화 2천 400만원)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팬데이 행사 참가를 위해 일본을 방문 중인 이승엽은 전날 오후 도쿄돔에서 직접 상을 받았다.

이승엽은 올 시즌 41개의 홈런 등 타율 0.323, 108타점, 101득점의 맹활약을 펼친 뒤 내년 연봉 6억5천만엔을 포함해 4년간 최대 30억엔에 이르는 거액의 장기 계약에 성공했다.
 특히 도쿄돔에서만 22개의 대표를 쏘아 올려 지난 2003년 로베르토 페타지니가 세운 한 시즌 도쿄돔 최다홈런과 타이를 이뤘고 81안타 50타점을 기록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위풍 잠잠' 위성미가 24일 일본 고치현의 구로시오 골프장에서 열린 카시오 월드오픈 토너먼트 골프대회 2라운드 18홀에서 공을 친 뒤 불만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다. /연합뉴스

“사각드라이버로도 안되네...” 위성미 꼴찌로 컷 탈락

일본골프 남자대회

'천만달러의 소녀' 위성미(17·나이키골프)가 올해 마지막 치른 공식 대회에서 꼴찌라는 성적표를 받아 들었다.
 위성미는 24일 일본 고치현의 구로시오골프장(파72·7천235야드)에서 열린 일본프로골프 투어 카시오월드오픈 2라운드에서 버디없이 더블보기 1개와 보기 6개를 묶어 80버퍼 80타를 치는 부진을 면치 못했다.
 2라운드 합계 170버퍼 161타로 컷 탈락이 확정된 위성미는 오토 도모미치(일본·162타)에게 겨우 1타 앞서 102명 가운데 101위가 됐지만 도모미치가 대학생 아마추어 선수여서 프로 선수로서는 최근 출전한 남자프로골프대회에서 3연속 꼴찌에 머물렀다.
 지난해 단 1타차로 컷을 통과하지 못해 기대가 높았던 이 대회에서 위성미는 작년에 비해 눈에 띄게 기량이 후퇴한 모습을 보여

안타개움을 샀다.
 정상급 선수들이 적어낸 스코어보다 무려 20타 이상 차이가 난데다 컷 기준 타수보다 10타 이상 모자랐다.
 이번 대회에서 정규 타수만에 볼을 그린에 올린 게 절반도 안될만큼 샷 난조에 허덕인 위성미는 평소 약점으로 꼽히던 퍼팅 역시 실패하지 않아 이를동안 단 1개의 버디도 뽑아내지 못했다.
 특히 300야드에 육박하는 장타를 뿔어냈던 드라이버 샷은 비거리를 자랑할 여유도 없이 엉뚱한 곳으로만 날았다.
 지난 5월 아시아프로골프투어 SK텔레콤 오픈에서 당당히 컷을 통과해 삼금까지 받았던 위성미는 이후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2개 대회와 유럽프로골프 투어 대회 1차례, 그리고 이번 대회까지 4개 대회 연속 수준 이하의 경기력을 보여 더 이상 남자대회 출전은 무리라는 비판에 다시 한번 직면하게 됐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아시안게임 北 선수단 16개 종목 162명 출전

북한이 제15회 도하 아시안게임에 16개 종목에 걸쳐 총 162명의 선수를 파견한다.
 24일 도하 대회 조직위원회에 따르면 북한은 남자 축구 38명을 비롯해 양궁 3명과 육상 4명, 복싱 4명, 사이클 3명, 수영 11명(다이빙 4명), 체조 15명(리듬체조 3명), 유도 9명, 궁수도 4명, 조정 19명, 사격 13명, 소프트볼 15명, 탁구 7명, 역도 7명, 레슬링 8명, 우수 1명 등 16개에 종목 162명(남자 67명, 여자 95명)이 출전한다.
 북한은 이번 도하 대회에서 금메달 10개를 포함해 총 50개의 메달을 따 부산 대회를 능가하는 성적을 거둔다는 목표다.
 지난 1990년 베이징 대회 때 금메달 12개로 종합 4위까지 올랐던 북한은 1994년 히로시마 대회에 불참했고, 방콕 대회 8위(금 7개, 은 14개, 동메달 12개)에 이어 4년 전 부산 대회 때는 9위(금 9개, 은 11개, 동메달 13개)로 밀렸다.
 북한은 아시아 최강인 여자 축구와 복싱, 사격 등을 금메달 유망 종목으로 꼽고 있으며 탁구에서는 개인전과 단체전에서 각각 3위 이내에 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 25일(토)
 - ▲한국실업그랑프리테니스대회(13 : 00·KBSN SPORTS)
 - ▲삼성하우젠 K-리그 챔피언결정 2차전(수원 삼성-성남 일화)(13 : 55·MBC)
 - ▲대통령배 전국 씨름왕 선발대회 청·장
- 26일(일)
 - ▲잉글리시 프리미어리그(풀럼-레딩)(00 : 00·MBC ESPN)
 - ▲한국실업그랑프리테니스대회(13 : 00·KBSN SPORTS)
 - ▲N-리그 챔피언결정 2차전(15 : 00·
- 27일(월)
 - ▲잉글리시 프리미어리그(토트넘-위건)(00 : 00·MBC ESPN), <맨체스터Utd-첼시>(01 : 00·MBC ESPN)
- 27일(월)
 - ▲FIVB 세계 남자배구 선수권(12 : 50·Xports), (17 : 50·Xports)
 - ▲프로농구<전주KCC-대구 동양>(14 : 50·KBS1), <삼성-SK>(14 : 50·Xports), <전지랜드-LG>(16 : 50·SBS스포츠)
- 27일(월)
 - ▲프로농구<LG-모비스>(14 : 50·Xports), <동부-전지랜드>(15 : 00·SBS스포츠)